대구시, 숨겨진 명소 발굴 등 '열린 도시 브랜딩' 집중

스토리텔링 북, '도달쑤' 활용 등 주요 도시 돌며 콘텐츠 전시·공유 핵심 정보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대구시청.

대구시는 대구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브랜드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도시 순회 전시, 숨은 명소 발굴, 스토리텔링 북 제작, 도달쑤를 통한 시민 소통 등 대외적으로 '열린 도시브랜딩'에 집중한다.

지난해 대구시는 대구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전달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마케팅 전략으로 현장형 도시브랜드 존과 3차례 SNS 시민참여 공모전, 포털사이트(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도시철도 이용 광고 등에 주력했다.

특히 한 달간 동대구역 광장의 '반갑다 대구! 파워풀 대구 전시관'은 대구 미래 50년에 대한 시민 이해와 다양한 도시브랜드 콘텐츠를 소개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대구시는 올해 '대구가 다시 힘차게 우뚝 솟아오른다'는 의미의 대구굴기 원년을 맞아 대외적으로 찾아오고 싶은 도시 인프라를 알려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도시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것을 도시브랜드 마케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대구시는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권역별 주요 도시 6곳과 동대구역, 엑스코 등을 돌며 대구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에서 전시 및 공유한다. 이는 타 시도의 관문지역, 홍보관, 박람회, 다중이용시설 등을 선정하여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창의적인 전시물과 포토존을 구성해 다양한 도시브랜드 콘텐츠(5대 신산업, 활력의 도시, 역사와 정신, 명소 등)를 입혀 대구의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대구의 매력과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유·무형 브랜드 자원인 역사, 정신, 산업, 환경, 명소, 음식 등에 대해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스토리텔링 30선과 대구의 핵심 정보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20선을 리뉴얼하여 책자로 제작하고, SNS 채널로 알리는 등 대내외에 대구를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도시 달구벌 수달'을 뜻하는 도달쑤 캐릭터의 2D, 3D를 다양한 콘텐츠로 온·오프라인에 공유하고,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캐릭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숨겨진 명소와 도심의 폐·유휴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인 활동공간, 플리마켓 등 자유로운 야외활동을 위한 활력 넘치는 공간을 발굴해 도시 활력과 매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경북 알림 서포터즈 찾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월 15일까지 경북 정책, 명소 등을 알리는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70명으로 월 1회 경북 취재 활동에 적극 참여 가능한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일반분야 50명, 영상분야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SNS 서포터즈는 경북 각 분야별 현장취재를 통한 블로그 기사 작성으로 도정 온라인 홍보활동을 맡게 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올 연말까지 활동한다. 서포터즈에게는 매월 콘텐츠 제작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하며, 도 주최 간담회 초청, 팸투어,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분기 및 연간 우수 서포터즈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간 우수 활동자에게는 도지사 표창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경북=이상호 기자

여수시 '율촌 소뎅이항' 어촌신활력 증진 공모사업 추진

여수시는 '율촌 소뎅이항'이 해양수산부의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율촌 소뎅이항 지구에는 2023년부터 3년간 국비 35억 원을 포함한 50억여 원이 투입된다. 시는 율촌 소뎅이항의 안전한 조업활동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방파제 조성, 부잔교 설치, 소뎅이(솔뚜껑) 쉼터 정비 등 어항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율촌 소뎅이항 지구는 '더 안전한 어항·더 행복한 어촌'으로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전남)=김용확 기자 jijacecom@

'경남도민의 날 찾기' 아이디어 공모 나선다

경상남도는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15일간 '경상남도 도민의 날' 찾기 도민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경상남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경상남도 도민의 날 제정을 위해 진행한다. 도민의 날은 경남의 역사, 문화와 정체성을 잘 나타내면서 도민의 공감대가 높고 기억하기 쉬운 날, 축제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도민들이 편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날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아이디어를 찾는다.

/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창업지원센터 '스테이션H' 건립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스테이션H(솔라시도 스마트컬리지)를 건립한다.

스테이션H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4차 사업 및 미래 산업 전문 기술을 교육하고, 기업도시내 연계한 인력양성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 임시 창업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확정되어 총 60억원을 투입, 오는 2024년도까지 연면적 1,928㎡의 2층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전남도, 개조전기차 안전성 실증 준비

'1.3조 친환경 시장' 공략

작년 3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2년간 155억 투입… 실증기반 구축

전남도가 1조3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개조전기차 시장 공략과 관련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착수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3개 지역이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영암군은 '제작·실증', 목포시·해남군은 '주행실증' 특구로 지정돼 올해부터 2년간 국비 90억원, 지방비 39억원, 민자 26억원 등 총 155억원을 투입해 개조전기차 제작·실증 기반을 구축한다.

개조전기차 제작·실증 기반이 구축되면 전남지역 알비티모터스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12개 기업·기관이 본격 연구에 착수한다.

연구원과 기업들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면서 모터, 배터리, 프레임 보강 등으로 인해 중량이 변화한 데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하게 된다.

전남도는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사업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한 뒤 협약을 하고 실증 기간이 끝나는 내년까지 총 27대의 개조전기차를 제작할 예정이다.

주행 실증을 통해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 평가법을 개발하고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주행시험 평가 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안전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전남도는 개조전기차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택배화물차량·운전면허학원 노후차 등 국내시장만 7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동남아 수출 중고차,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클래식카·캠핑카 6150억원 등 총 1조3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남도는 연간 1500억원대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전남)=앙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 '함부르크 개항축제' 주빈도시 선정

방문객에 문화·기업 홍보 기회

부산시가 오는 5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항구축제인 '제834회 함부르크 개항축제'에 주빈도시로 공식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전 유럽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함부르크 주정부 경제혁신부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함부르크 개항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다. 올해 행사는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린다.

행사 기간 각종 선박 퍼레이드, 불꽃놀이, 페러글라이딩 등 200개 이상의 행사가 도시 전역에서 동시 개최된다. 특히, 1개 국가 또는 도시를 주빈으로 선정해 방문객에게 주빈 국가(도시)의 문화와 기업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축제는 전 세계 214개의 TV방송, 487개의 라디오 방송, 1500개 이상의 지면 방송 매체, 2079개의 인터넷 매체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이번 주빈도시 선정은 지난해 11월 함부르크 주정부에서 부산시를 주빈도시로 공식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시는 주빈도시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 개항축제 기간 개최국인 독일을 포함, 유럽 전역에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개최후보 도시 부산의 매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덕군, '강구항' 新 경제거점 만든다

공모사업 선정… 300억 확보

영덕군 강구항 일대가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선정지로 최종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사업비 300억원 이내) 대상지로 강원 고성군, 충남 보령시, 전남 보성군, 경북 영덕군, 경남 거제시를 선정해 발표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의 후속 공모사업으로,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영덕군은 작년 11월 해당 공모사업에 신청한 후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방향 및 타당성, 법적 검토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달 21일 서면평가(서류 및 발표)를 통과했으며, 지난 1월 5일 현장 방문 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돼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영덕군은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 환동해권 수산경제 1번지, 강구항'이라는 슬로건으로 강구항 일대를 수산식품 기반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 등을 추진하게 된다.

/영덕(경북)=김종설 기자 kimjongseol@

'신경주역', '경주역'으로 역명 변경

경주시, 개통 13년 만에 마무리

경부고속선의 기착역이자 천년고도 경주의 관문인 '신경주역'을 '경주역'으로 바꾸기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010년 11월 경부고속선 2단계 구간 개통 당시 '신경주역'이라는 역명으로 문을 연 이후 13년 만이다. 경주시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경주역'을 '경주역'으로 역명을 변경·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부고속선 '신경주역'은 역명 확정 당시 중앙선·동해남부선 '경주역'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新)경주역'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2021년 12월 중앙선·동해남부선 이설로 기존 '경주역'이 폐역이 됨에 따라 '신경주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할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